

장흥 어민들 “화물선 때문에 양식장 훼손”

강진군 마량 신마항~제주간 취항 한달만에 운항 잠정 중단

어민들, 역대 피해 추정 대책 마련 요구 ... 道 “중재 나설 것”

강진 마량 신마항~제주를 오가는 화물선이 취항 한 달도 못돼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장흥 어민들이 화물선 운항으로 양식어장이 훼손됐으며 손해배상과 운항 중단을 요구하면서다. 항로에 포함된 완도 어민들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화물선사측은 대신, 완도로 선적항을 옮겨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 항로 개설로 육상 배후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인근 상가 활성화 등을 기대했던 강진군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장흥군도 지역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자치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변질 조짐이 감지된다.

인근 산재한 양식어장 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양식 어민들과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전남도와 장흥·강진군 등에 따르면

(주제마해운이 마량 신마항~제주 서귀포항 간 화물선을 취항하면서 항로 주변 미역·매생이 양식장 시설물을 훼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어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국 매생이 최대 주산지인 장흥군 대덕읍 웅암·내저·신리 일대 270여 양식어민들은 화물선이 양식장이 조성된 항로를 운항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20ha에 걸쳐 임시로 이식해놓은 미역종묘 6000t(1억5000만원 상당)과 32ha에 이르는 매생이 양식장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완도해경에 신고했다.

장흥군은 화물선의 두 차례에 걸친 운항(10월 17·25일)으로 입은 시설 피해액을 1억7000만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민들은 그러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화물선 운항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양식어민 150여명은 지난 23일 전남도를 방문, 충분한 검토없이 마량 신마

항~제주 간 화물선을 취항토록 해 피해를 입혔다며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화물선 취항 전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장을 둘러봤다면 항로 곳곳에 양식어장이 조성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운항에 앞서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흥 뿐 아니라 신마항~제주 항로에 완도 양식장도 적지 않아 완도측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완도 어민들은 오는 5일 화물선사측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어민들의 집단 반발이 불거지면서 제마해운측은 지난 27일부터 신마항~제주 서귀포항 간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완도항으로 선적항을 옮긴 상태다.

제마해운은 최근 강진군과 체결한 ‘마량 신마항 화물선 취항을 위한 투자협약각서’에 따라 2264t급 화물선을 하루 1편 운항해왔다.

강진군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운사가 애초 화물선 취항으로 인

한 신마항 주변 SOC 확충과 고용 증가, 숙박, 음식점업, 일반 상가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상권 활성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진항, 특산물, 강진산단 내 기업들 생산품까지 점차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강진군은 애초 화물선 취항으로 인한 직접적 파급효과가 항만사용료, 상사·임시 고용 증가 등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하루 120대의 화물차 선적, 화물차 기사들의 숙식비 등으로 예상되는 간접 효과도 연간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전남도는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인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강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190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신마항을 완공했다.

신마항은 접안시설 길이 180m, 화물부두 170m, 관리부두 70m에 이르는 연안항으로, 배후부지(1만5923m)를 갖췄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숲 속의 전남’ 사업비 전국 최다 확보

내년도 녹색자금지원 공모 ‘나눔숲’ 조성 등 9억여원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도가 내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과 ‘다함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과 ‘다함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2018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소 9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녹색자금사업은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아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숲과 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액 녹색자금으로 이뤄진다.

전남에서는 목포시 소망복지재단, 곡성군 이해뜰어린이집, 강진군 행복

한집, 신안군 장산어린이집 등이 나눔숲을 조성한다.

‘다함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공유지에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거닐도록 목재데크 등 산림체험활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목포시 유달산 다함께 나눔길, 순천시 조례호수공원 나눔길이 선정됐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쉼터와 산책 공간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유익한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녹색자금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설계 단계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숲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녹색자금사업이 도입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180억원의 기금을 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46개소와 지역사회 나눔숲 21개소, 나눔길 3개소를 조성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3~19일 고창 국화축제

고인돌공원 일원서

‘한국인의 분향, 고창 국화축제’가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고창고인돌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들녘국화 600만 송이로 조성된 오색 국화 향기 산책로, 국화 분재, 선사시대 고인돌과 탐사르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이야기를 표현한 국화동물원이 선보인다.

산책로 옆에 조성된 오감 만족 국화체험장에선 관광객들이 직접 식용국화를 수확해 다도체험, 국화빵, 국화 떡, 화전 시식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첫날인 3일에는 식전 퍼레이드와 개막식, 판소리보존회 공연, 오카리나 연주가 분위기를 띄우고 4일에는 우쿨렐레 연주와 밸리 댄스, 난타, 부채춤, 통기타·민요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5일에는 포코아포코 밴드 공연과 한국무용, 민요 공연 등 행사 기간 내내 다양한 소규모 문화공연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축제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국화꽃을 마음껏 꺾어갈 수 있는 ‘국화꽃다지기’ 이벤트가 열린다.

고창군 관계자는 “축제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고 정정 고창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정욱기자 pjh@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이 전국 최우수 마을공동체로 뽑혔다. 우수영 문화마을 골목 담벼락에 조성된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 <해남군 제공>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 공동체 사례 전국 최우수 선정

마을 미술 프로젝트 등 이색 아이디어로 눈길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이 전국 최우수 마을공동체로 뽑혔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한마당’에서 전남 대표로 참가한 해남 우수영문화마을이 전국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받았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한마당’은 현대사회 변화의 대안으로 강조되는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외 공동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

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장이다. 지난 2015년 첫 시행돼 올해 세번째다.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은 1970년대 이후 면사무소·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초등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급격히 쇠퇴, 폐촌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웃음을 잃어가는 울돌목의 우수영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행복한 미소를 선사하기 위해 주민들의 정신을 담은 ‘소~울

(SOUL)’을 주제로 설정,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나섰다.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 해설사’를 양성하고, ‘정재카페’를 만들어 마을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 주민 50여명은 이날 행사에서 우수영 문화마을의 조성 과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아리랑·민요·사물놀이 등 퍼포먼스를 활용해 표현,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 북춤·난타 공연을 통해 전남의 후덕한 마음을 열정적으로 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유물 1200여 점 전시

지역 도자문화 한눈에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지난 31일 문을 열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지상 3층 연면적 9723㎡의 규모로 2014년 8월 첫 공사를 시작해 완공했다. <사진>

현재 역사문화실·분청사기실·설화문학실·기획전시실·특별전시실 등 5개의 전시실에 약 12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역사문화실은 선사·고대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불교, 임진왜란 관련 유물 등을 볼 수 있다.

분청문화박물관을 대표하는 분청사기실은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를 소개하고 발굴 후 출토된 유물과 복원 재현품 등을 선보인다.

설화문학실은 지역 무형유산인 구비문학과 설화 관련 자료·퀵넌츠 성과물을, 기획전시실은 ‘유물 기증·기탁 운동’으로 기증받은 유물들을 전시한다.

개관을 기념, 국내 최초 발견 유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두원 유적’을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전시실에 전시된다. 두원 유적은 1943년 고흥군 두원면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74년 만에 고흥으로 돌아왔다.

또 고흥군에서 출토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물 중 모두면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모·금동신발·청동거울도 전시된다.

풍양면 출토 모자곡옥·신여량 장군상가교서 등 지역 역사를 품고 있는 유물들도 다음 달 말까지 선보인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과 함께 설화와 분청사기를 테마로 조성된 분청문화공원은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이라며 “지역 도자문화를 보존하고 우리의 역사·문화를 세계로 꽃 피우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원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판선·별墅적합 2억4천
- 원도 약산면 득암리 경관최고부지 31503㎡ 영소사목적합 5억7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인한 분부지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리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봉동 대지 144㎡ 주택 118㎡ 주택대공실 1억5천
- 월산동 소봉동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계 2건과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서동 제일피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밭200전할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층주택 60여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고창군 무정면 옥신리 태양광 적합지 13435㎡ 2억6400
- 앙개장 허가부지 장흥읍 15000㎡ 축사허가도 있음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성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전북 고창 대산면 아파트상가 1·2층 252㎡ 은행 1억 매도 5천만원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식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릉시정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